

추 모 사

선대의 고귀한 뜻이 생명의 기운을 담은 봄소식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종단의 증명법사라 할 수 있는 지공·나옹·무학 세분의 화상과 먼저가신 순국선열, 그리고 호국영령전에 분향배례하고 맑은 차로 추모의 마음을 올립니다.

1700여년의 한국불교는 삼국시대와 고려를 거치면서 흥하기도 하였지만 조선조를 지나면서 새로운 변혁에 의해 쇠퇴의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종단의 수행법인 간화선이 보조국사 지눌스님에 의해 도입된 이후, 세분의 선사께서는 법통설(法統說) 논쟁을 거치면서 법맥을 전승한 조사로 정립되고 현재에 이르러 종단의 증명법사로 확고하게 자리 잡아오신 분들입니다.

회암사에 주석했던 삼대화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인도와 중국에 있어서도 매우 특별한 선지식이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땅의 불교가 우리의 정체성을 갖고 동북아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었으며, 조계종단의 수행가풍과 선맥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섭존자 이후 108번째로 의발(衣鉢)을 전해 받은 지공선사께서는 원나라와 고려를 오가며 중생의 고통을 법음으로 감화하며 전법을 펼치시는 등, 맑고 깨끗한 무생계(無生戒)사상으로 고려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러한 불법홍포의 굳은 원력으로 이곳 양주 천보산(天寶山) 자락에 회암사를 창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이어 불교사의 법기(法器)이신 나옹스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불법을 주로 행하시며 선풍을 현양하셨으며, 다시 무학스님은 선대의 원력을 계승하고 유불일치관을 통하여 중생제도의 꽃을 피워 나가셨습니다. 또한 왕사로서 국가와 민족의 지도자에 조력하고 여말선초 소용돌이치는 정치적 혼란기에 정신의 지도자로서 헌신을 다한 모습은 동시대의 사회와 민족의식을 크게 주도하였음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나옹선사는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라는 귀에 익은 말씀으로 종교와 시대를 초월하여 수행자는 물론 현대인

에게까지 삶의 바름을 깨우쳐 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삼대화상을 모신 조사전은 여주 신륵사, 순천 선암사, 합천 해인사 등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 있지만 실제 주석처이며 수행처였고, 삼대화상의 묘탑이 실존하고 있는 양주 회암사가 가장 정통성을 지닌 곳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회암사는 세분의 다례를 본사 차원에서 봉행해 왔지만 앞으로는 종단은 물론 범불교 차원의 다례재가 되어야 하며, 한국불교 역사의 현장인 이곳을 수행성지로 보존하고 알려야 하는 것은 후대의 당연한 도리라 할 것입니다.

삼대화상을 모시고 있다는 것과 삼대화상의 수행도량이었다는 것은 회암사만이 아니라 양주의 자랑이며, 조선건국의 역사를 함께 지니고 있는 회암사에 삼대화상의 자취가 남아 있다는 것은 불자들에게 큰 복이며 신심과 원력을 갖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러한 선대의 공덕과 덕화를 받들어 청정 수행가풍을 올곧게 이어가야 할 것이며, 계행을 바로 세우는 진정한 자성을 통해 신뢰와 존경이 함께하는 채신을 이루어 한국불교의 ‘중흥’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삼대화상의 다례를 올리며 다시 한 번 우리가 가야할 길을 새롭게 모색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지공 나옹 무학 세분의 화상과 먼저가신 순국선열 그리고 호국영령 전에 맑은 차로 추모의 마음을 올립니다.

불기2557년 4월2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